특별기고

「세계 물의 날」기념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고...

中島拓男(나까지마 다꾸오)
日本 滋賀縣 琵琶湖研究所
총괄연구원

「한국관개배수위원회」주관으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시행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특별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KCID의 조홍래 회장님과 관련인사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포지엄과 더불어 관련 사업현장 견학도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 진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 행사에 많은 준비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한국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물사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의 방문이었으나, 이번 심포지엄 기간동안에 있었던 신문기자들과의 인터뷰라든가 농진공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수질보전 문제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심포지엄 다음날에 있었던 기술토론회에서는 수질보전대책에 관한 많은 중요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수질보전대책에 참고할 만한 것들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이러한 질문들의 배경에 대한 사전 지식의 필요와 충분한 토론 시간의 부족으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지구 견학은 저에게 참으로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엄청난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사업이 농지개발이라는 단일목적의 사업이 아닌, 종합적인 개발사업으로 검토되고 또한 치밀하게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련직원들의 이 사업에 대한 기대와 자긍심 가득한 모습 또한 나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감명적인 것은 이러한 한국의 간척사업이 다른 어떤 목적보다 농업정책에 기초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두개의 간척사업(나까우미 간척, 이사하야만 간척)이 계획되고 있으나,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척사업이 계획되던 때와는 상황여건이 크게 달라, 일본 정부에서는 쌀 감산 정책을 쓰고 있어, 풍요롭고 귀중한 자연을 훼손하여 가면서까지 농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농업정책은 현재 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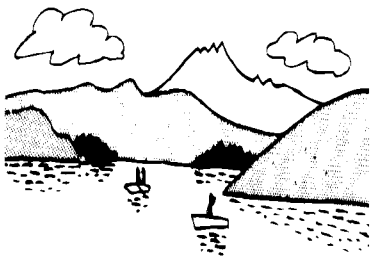
다음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으나, 아름다운 바다와 갯뻘을 보면서 두가지 문제점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생태계 보전과 수질보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질보전 문제에 있어서는 담수호화에 따른 수질악화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비와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인공호수를 갖고 있는 곳은 '하찌로가다' 간척지입니다. 이 간척지는 표면적이 22,000 ha로 새만금지구의 반정도에 불과한 크기의 사업입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혼합되어 있는 내해를 막아 전체 면적의 80%에 가까운 면적을 농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957년에 착공하여 1966년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간척지 안에 조성된 농업용수원인 담수호 물의 수중 유기물 함량이 간척사업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담수호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수중에서 농약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농지로부터의 농약유출 억제 문제는 많은 호수나 하천에 있어서 커다란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척사업지구는 아니지만 담수호화에 따른 수질악화 문제는 나가라천 하구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가라천은 종종 해수가 역류되어 농지에 염해를 일으키는 일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에 하구에 댐을 축조하였는데 이 댐의 체절로 인하여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 점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지적이 된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사업계획 입안시 환경보전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설정이나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중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인구의 증가에 반하여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오염된 호소나 하천의 수질정화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21세기의 긴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질보전 이상으로 어려운 과제는 생태계보전 문제입니다. 멸종하는 생물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생태계보전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만든 간척지는 담수화가 필수적이므로 뻘의 생태계가 소멸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새로운 담수 생태계를 여하히 조성하느냐가 이에 뒤따르는 과제인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수질보전에 관한 문제들을 아직 해결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조사, 연구, 개발기술은 상당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滋賀縣(시가현)에서 琵琶湖(비와꼬)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선진적인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琵琶湖(비와꼬)연구소는 환경보전연구 추진과 동시에 이에 관한 정보센터 기능도 갖고 있어, 이 분야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정보자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정보교환 등 교류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의 방한 기간동안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은 정말로 감격스러웠으며, 귀국하는 기내에서의 눈 덮인 아름다운 한국 산야의 감상은 저의 한국방문의 훌륭한 경험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